

초대 청년변호사평의회 의장 - 김학성 변호사

양은경 / 변호사기자

경기침체와 변호사수 급증으로 인한 수입감소에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그중에서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변호사들은 황폐해진 서초동의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법조계의 '약한 고리'가 아닐까? 게다가 아직까지는 변호사 하면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단단해서인지 애로사항을 내놓고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중 청년변호사에 속하는 법조경력 10년 이하 변호사는 4,400여명으로 전체 회원의 65%가 넘는다. 이들을 위해 지난 2009. 3. 출범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평의회(이하 '청평')의 활동도 어느새 2년을 거의 다 채워 가고 있다. 단체활동이 어느 직역보다 쉽지 않은 법조계에서, 스스로도 갈길도 평탄치 않은 상황에 청년변호사들을 위해 발로 뚫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며, 어떤 일들을 해 왔을까? 임기 2년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평의회 초대 의장 김학성 변호사를 만나봤다.

- 지난해부터 서울변호사회의 청년변호사평의회 의장을 맡고 계시는데, 청년변호사평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분들이 활동하시는지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청년변호사평의회(이하 '청평'으로 약칭함)는 2009년 3월에 처음 구성된 것인데, 서울변호사회의 특별위원회의 하나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의결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변호사회의 청년변호사의 애로점과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건의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청년변호사'란 법조 실무경력 10년 이하의 서울변호사회 회원을 일컫는 것인데, 현재 사법연수원 31기부터 39기까지에서 1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의회는 성격상 공적 이슈에 평소 적극적인 분이거나, 또는 연수원 조장 이상의 연령대로서 어느 정도 그 기수의 대표성이 있는 분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어떻게 하다 '청년변호사'평의회 의장직을 맡게 되셨는지요? (사실은 이 질문을 던지며 변호사님의 눈치를 살폈다. 온화한 미소, 연륜과 경력이 묻어나는 넉넉한 풍채의 변호사님은 56년 생이시다.)

제가 액면은 청년이 아니지요(웃음). 장가를 일찍 간 친구들은 벌써 아들딸 청첩장도 돌리고 그렇습니다. 청평이 31기부터 그 아래로 구성된 관계상 31기 자치회장인 제가 맡아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31기부터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임기가 2년이라는

것과 10년 이하라는 요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31기부터 시작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것인 줄 알았으면 고사(固辭)했을 텐데, 처음 창립된 것이라 잘 몰랐었지요.

- 결국 31기 자치회장을 역임하신 덕에 수료하고도 힘든 직책을 떠맡게 되셨네요. 지난 2년간 청년변호사평의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추진해 오셨나요?

국회 입법자문변호사단 설립, 소액사건 조정·중재 전치주의 도입 촉구, 청년변호사상 제정, 개업변호사 지원특별팀 구성(인큐베이팅 시스템과 공동사무실지원), 외국인 이주노동자 법률지원, 청년변호사 해외단기연수 등을 의결하여 서울변호사회에 건의하였습니다.

-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을 해 오셨군요. 그간 해 오신 일 중에 가장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며, 미진하거나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장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지는 감히 말하기 어렵고, 그저 개업변호사 지원에 대해 서울변호사회의 공식적인 지원체제를 이끌어 낸 것을 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청평이 건의한 일들이 단기간에 결실을 맺는 것보다는 서울변호사회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에 청평 정기회마다 간사에게 전회(前回) 결의안이 서울변호사회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를 보고하도록 하여 실효를 거두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옛 로마의 원로원에 대항한 평민회를 내심 염두에 두었지만, 실제로는 건의기관이라는 한계상, 그리고 서울변호사회 산하기관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은 아주 많지요.

- 말씀하신 대로 개업변호사들을 위한 지원 방안은 청년변호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아닌가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며, 현재 어디까지 추진중인가요?

그 핵심은 인큐베이팅 시스템입니다. 아직은 혼자 사무실을 낼 수 없는 개업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서울변호사회가 사무실 공간이나 직원, 각종 사무기기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이를 위한 TF팀을 만들어 논의중에 있습니다.

- 평의회 활동에 있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변호사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을 상정하시나요?

그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여러 주위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사람도 만나기도 하였지만, 서로 먹고살기 바쁘고, 우리 서로간에 만연되어 있는 무관심과 냉소주의로 인하여 의견 수렴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의견 수렴을 하려 했고, 평의회 임원들이나 의원들로부터 이메일로 의견을 달라고 하였지만, 솔직히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결국 주위의 가까운 사람 위주로 의견 수렴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기들이 많이 도와주었지요.

- 최근에 고용변호사들의 경우에도 불안한 지위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변호사들의 경우 임신·출산을 겪게 되면 더 이상 고용보장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 듯합니다. 청년변호사평의회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시는 바는 없는지요?

죄송하지만, 현재 청평에서 여성변호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좀 소홀했습니다. 변명 같지만, 현재 청년변호사의 고충은 남녀를 불문하고 마찬가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안전을 위한 의견 수렴이 문제되는데, 여성 변호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 변호사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좀 주시지요.(웃음)

- 막상 변호사님이 의견을 구하시니 말씀이 막히네요. 가만히 앉아 청평 덕이나 좀 볼까 했습니다만... 저같은 무임승차자들을 위해 일하시려니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그럼 현재 '청년변호사'로 분류할 수 있는 경력 10년 이하인 변호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어려움이란 추상적으로 말하면 불안한 미래라고 볼 수 있지요. 간단하게 고용변호사와 개업변호사로 양분한다면 고용변호사도 결국은 개업의 길을 고민한다고 볼 때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수입사건의 격감과 더불어 송무 외의 분야에 눈을 돌리라든지, 전문화를 꾀하라는 주위의 조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변호사들이 체감하기에는 별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불안과 암담한 미래만 보이는 안타까운 실정이지요.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이력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법연수원 31기 자치회장을 지내셨지요? 요즘은 사법시험 준비보다 연수원 공부 훨씬 힘들다고 할 정도로 경쟁이 격심합니다만, 당시는 지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을 듯합니다. 자치회장을 하시면서 기억나는 일이나 재미있는 일이 있으셨는지요?

사실 저희들 때에도 임용을 위한 성적 경쟁이 치열하였지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서로 우의를 다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체육대회도 기억이 나고, 설악산으로 간 수학여행도 기억에 나는데, 연수생들끼리 밴드라든지, 사물놀이, 댄스시합 등 연습도 많이 하였습니다. 아마 연수생 전체가 함께 모여 수학여행을 간 것은 인원관계상 31기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선음악회를 위하여 가수들과 교섭을 한 것도 기억이 나고, 저와 반장들이 매주 한 번 모여 점심을 하면서 우애를 다진 것이 지금도 31기는 형제처럼 회장과 반장들이 1년에 한번씩 꼭 모이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연수생 중 한 명이 수료를 앞두고 시험중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 수습과정에서 연수생 전체가 의견이 나뉘어 회장인 저에게 서로 찾아와서 나름의 요구를 하는 등 고민을 하였던 일도 있었습니다.

- 연수원을 수료하시고 바로 개업하셨나요? 당시만 해도 동기들이 자치회장님께는 사건을 물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덕을 좀 보셨는지요?

하하. '당시'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루머를 들은 바가 있어서, 연수생 시절 28기 자치회장님을 만나 그런 것이 있느냐고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연수생 300명 시절만 해도 그런 것이 좀 있었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500명이 된 28기부터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수료후 변호사를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 후부터이지요. 저는 700

명 시절이라 더욱 언감생심이지요. 서로 형편이 어려운데 몰아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다만 동기 사건의 경우 가끔 동기변호사가 자기보다는 회장이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하여 상담자에게 나를 추천해준 경우가 몇 건 있기는 합니다.

- '자치회장 특혜'는 이미 그 시대에도 루머고 전설이었군요. 아무튼 덕을 보신 것은 거의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변호사님이 개업하실 당시의 상황과 현재 개업을 하는 청년변호사의 상황을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개업할 당시에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선배들이 몇년만 고생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를 해주셨지만(선배들의 이러한 예언은 맞지 않았던 것 같네요^^), 지금은 그러한 위로 자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개업을 하는 청년변호사들은 저희 때보다는 더 진취적이고, 더 패기 있게 뛰어들어서 오히려, 저희 때 개업한 변호사들보다 더 잘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다보면 아주 확신을 가지고 변호사사무실 운영에 자신감을 피력하는 분들을 보면 아주 부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31기보다 10년전쯤, 늦어도 28기까지는 어느 정도 업계 상황이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 뒤로는 아주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새로 개업을 하신 분들이 적극성이라는 면에서는 저희들보다 뛰어나다고 봅니다.

- 변호사 업무를 하시면서 인상깊었던 사건이라든지, 그간 느꼈던 소회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글쎄요. 저도 내년이면 10년차에 접어드니까, 인상 깊었던 사건도 몇 건 기억나네요. 그 중에 상대방 증인을 반대신문해야 하는데, 그 증인과 상대방 당사자가 불륜관계임을 들어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불륜관계임을 밝히지 않고 모른 채 반대신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후에 선배들에게 물어본 결과, 의뢰인을 위해 당연히 불륜관계임을 밝혀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법정에 둘을 다 아는 방청객들이 있는 형편에서, 재산적 문제 때문에 각기 가정을 가진 사람들의 가정마저 파탄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았습니다. 수임과정에서도 얼굴이 두꺼워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변호사는 의뢰인의 돈을 받는 대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서도 의뢰인의 걱정을 대신해주는 직업입니다.

- 경기침체와 로스쿨 등 법조인력의 폭증으로 청년변호사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분야 개척이나 새로운 영역 창출 등 여러 가지 대안이 논의중인데요,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는 청년변호사의 활로는 무엇인가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2012년부터는 로스쿨 졸업생들도 합류하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바뀌어질 것인지는 점치기 어렵습니다. 청년변호사가 앞으로 어떤 곳으로 활로를 찾아야 하는지는 이미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경험상 어떤 방법론보다는 결국 얼마나 씩씩하게 굴하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나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위에 비관론자들이 많지만,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고 용감하게 전진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변호사 업계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청년변호사평의회 의장직을 수행하시기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말씀하신대로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업 외에 부가적인 활동을 하기가 더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제가 의장을 하려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31기 회장이라는 우연의 결과로 청평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초대 의장인만큼 과욕을 부리지 말고, 차기 집행부에서도 청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의 주춧돌로 만족하고자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은 의견을 수렴하여 안건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렇지만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적극적인 활동이 어렵습니다. 모두 자기 일이 있는데, 청평일에 관심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의견 수렴을 하다 힘에 부치면 결국 청평의 부의장이나 간사 등 집행부에서 머리를 싸매고 안건을 만들어내곤 했지요. 그동안 그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안건을 상정하는 데 있어 방향을 잡기도 쉽지 않으셨을 듯합니다. 변호사단체의 특성상 단체 행동을 하거나 성명서 한 장 내기도 어렵고, 서로간의 생각의 차이도 있을 법한데요. 그간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근본적으로는 별무소용이란 냉소주의가 가로막고 있고요. 그리고 노선의 문제인데, 공익 추구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 있고, 당장 먹고살기 어려운 청년변호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익추구의 입장이 있습니다. 조금만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대쪽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로서는 공익과 노골적인 사익추구 둘 다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예컨대 청평이 공적인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면 청년변호사 사이에서도 잘난 임원들만 포커스를 받게 되고, 실제로 배고픈 청년변호사들은 냉소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이슈에 본격적으로 청평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하는 것은 차후 청평이 자리 잡으면 그때의 청평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하고, 되도록 현장에서의 청년변호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청년변호사의 권익만 추구하면 청평도 서울변호사회 산하인 관계상, 결국 서울변호사회의 이름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혹시 밥그릇 챙기기라는 언론의 가십이라도 뜨면, 변호사들 전체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보니 너무 뜨뜻미지근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하는 자괴감이 있습니다.

- 청평이 형식상으로는 의결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건의기관이어서 안건을 내놓더라도 실효성의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 이러한 제약은 어떻게 대처해 오셨나요?

제가 평의회 회의시마다 의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는데, 절대로 서울변호사회의 장식적 기구여서는 안 된다. 만약 평의회 결의를 무시하면 나는 앞장서서 서울변호사회와 싸우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서울변호사회 집행부에게도 만날 때마다 으름장을 놓았는데, 다행히 집행부에서 저희들 의견을 거의 수용하여 주었습니다. 다만 안건 성격상 단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지나고 나니 아무 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장시간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혹시 의장직을 연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연임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됩니다. 올해가 지나면 법조경력 10년을 초과하게 되니까요(웃음)
아마 제가 아니라도 다른 훌륭한 분이 청평을 잘 이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대리하는 사람들을 대리하는 것 자체가 만만찮은 일이다. 게다가 그 대상은 대외적으로
는 배고픈 내색도 하기 힘든 '청년변호사'이다. 인터뷰 내내 느꼈던 것은 처음 만난 상대한테
도 말을 술술 풀어놓게 하는 편안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어느 쪽도 놓치지 않는 탁월
한 균형감각이었다. 그렇기에 2년 가까이 말 많고 탈 많은 일을 잡음없이 해올 수 있었던 게 아
닐까. 그가 닦아온 길을 수많은 청년변호사들이 걸어들 것이다. 그리고 개척자인 그는 영원히 '
청년'으로 남을 것이다.